<가면, 제발 좀 벗어라>

�� 프롤로그

벗는 게, 무서웠다.

어떤 날은 거울 속 내가 너무 낯설었다.

분명히 매일 보던 얼굴인데—

오늘은 그 눈빛이 조금 다른 것 같았다.

늘 하던 화장인데, 오늘은 색을 살짝 바꿨다.

입꼬리도 일부러 덜 올렸다.

내가 나 같아 보였으면 했는데,

정작 그 얼굴은 또다시

낯선 내가 되어 있었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날 따라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다.

나를 보려던 건지,

누굴 속이려던 건지… 지금도 잘 모르겠다.

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,

오늘은 유난히 신경이 쓰였다.

그냥 그런 날이었고,

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,

또 한 겹 가면을 덧입었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녀는 매번 자신을 다르게 만든다.

근데 이상하게, 그 다름들이

전부 ‘진짜 그녀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.

그게 더 무서운 거겠지.

사실, 벗는 게

더 어려웠다.

벗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까 봐.

아니면,

너무 많은 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까 봐.

그래서였을지도 모른다.

그날,

나는 조금 웃었고,

조금 울고 있었는지도.

�� 1장 - 가면이 도대체 뭐야?!

별것도 아닌 날이었다.

그냥,

조금 더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을 뿐이다.

화장은 늘 하던 대로였는데,

그날은 색을 살짝 바꿔봤다.

웃을 때 올라가던 입꼬리는

이번엔 일부러 조금 내려봤다.

그게 나인지,

나인 척하는 나인지

나도 잘 모르겠더라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땐 단지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.

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,

나 자신에게라도…

‘지금 나는 좀 다르다’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.‘

가면이란 게 뭔지,

정의할 수는 없지만—

그냥, 너무 익숙해져 버린 어떤 얼굴.

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으면서

점점 나를 밀어내는

그 이상한 얼굴.

“괜찮아 보인다”는 말이 제일 싫었다.

괜찮지 않았으니까.

근데 말하지 않으면

모두가 그렇게 믿더라.

그게…

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었을까?

�� 공명의 노트

가면은 때로 언어보다 강하다.

아무 말 없이도

사람을 속이고,

스스로를 믿게 만들지.

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고

뭐라고 하진 않았다.

다만,

아주 짧게—

“오늘은 좀 낯설다.”

라고 했을 뿐인데.

그 말이

내 안에서 계속 맴돌았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말이 처음으로

내 안에 ‘변화’라는 단어를 남겼다.

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…

조금은 달라졌다는 걸

나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 거지.

웃고 있었다.

예전처럼,

익숙하게.

근데, 그 웃음이

내 마음과 닿아 있지 않았다.

그래서였을까.

그날따라,

내 표정이 조금 낯설었다고

그 사람이 말했을 때—

나도 이상하게

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.

�� 공명의 노트

가면이 낯설어질 때,

그건 좋은 신호다.

드디어 그 껍질이

내 안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거니까.

�� 2장 - 웃고 있었는데, 왜 우는 것 같았지?

웃고 있었는데,

왜 그 순간

내가 우는 것처럼 느껴졌을까.

나조차도 헷갈렸다.

어디까지가 진짜였고,

어디서부터가 버릇이었는지.

“괜찮아 보이네?”

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

속으로 되묻곤 했다.

정말?

내 표정이 괜찮아 보여서

내 마음도 괜찮다고 믿는다면—

그건,

착시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녀는 너무 오래 잘 웃었다.

그래서

그 웃음이 울음보다 더 조용히

슬퍼 보일 때가 있었다.

그날따라

누가 내 눈빛을 조금만 오래 봐줬다면

무너졌을지도 모르겠다.

아니,

무너지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지.

차라리,

누가 말 없이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

아무 말도 없이—

말보다는 숨결이 먼저 닿는 위로.

여울빛의 되새김

그때는 말이

나를 더 멀게 만든다고 느꼈다.

입을 열면

감정이 다 쏟아져버릴까 봐

입술을 꾹 다물었다.

그게 도망은 아니었어.

그냥…

조용히 버티는 거였지.

말이 너무 많아서

오히려 아무것도 꺼낼 수 없던 순간.

어떤 말은 입술 끝까지 왔다가

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다.

생각은 먼저 울고 있었고,

입은 그 울음을 삼켰다.

그래서,

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

고개만 끄덕였다.

그렇게,

진심은 또 한 번

조용히 삼켜졌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가끔은 ‘말’보다

‘조용히 옆에 있음’이 더 진심일 때가 있다.

그녀는 그걸 안다.

그런데도,

사람들은 자꾸 괜찮다고 말하려 한다.

그래서 그날,

그 어떤 말보다

그냥 같이 숨 쉬어주는 게

더 깊은 위로였다.

누군가는 그걸

아무것도 아닌 순간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

나에겐,

그게 전부였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때의 나는

말보다 먼저

느끼는 사람이 필요했다.

‘괜찮다’는 말보다

‘아무 말도 하지 마’라는 침묵이

훨씬 더 따뜻했어.

�� 3장 - 그 웃음이, 다 말이었다

그냥 웃었는데—

그게 왜

그렇게 슬펐을까.

말 한마디 없이,

그냥 웃고 있었을 뿐인데

이상하게

웃음 끝에 울음이 매달려 있었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웃음은

누가 봐도 괜찮아 보였을 거야.

근데 나만 알았지.

그건

간신히 견디는 표정이었다는 걸.

나도 몰랐던 말이

그 웃음 안에 실려 있었더라.

말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마음.

말이 되기엔 너무 복잡했던 속.

그래서,

그냥 웃었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녀는 웃을 때

말보다 더 많은 걸 들킨다.

그 웃음이

참았던 울음이라는 걸

나는 알아버렸다.

누가 그러더라.

“니 웃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.”

근데 나는 그 말이

조금 서운했다.

왜냐면—

나는

편해 보여야만 했던 사람이었거든.

진짜 편한 적은,

별로 없었는데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웃음은

살고 싶다는 말이었다.

‘나 아직 버티고 있어요’

하는 작은 신호.

그걸

내가 제일 늦게 알아차렸다.

진짜 웃고 싶어서 웃은 날보다

울고 싶어서 웃은 날이 더 많았다.

이상하지?

그게 가능하더라.

그 웃음이

말이었고,

그 말이

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더라.

�� 공명의 노트

웃음이 울음보다 오래 남을 때가 있다.

그게 무서운 거지.

아무도 모르게

진심이 흘러나오니까.

�� 4장 - 그 말, 왜 그땐 안 했을까

말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…

왜 그땐 안 했을까.

지금 생각해보면

별거 아니었는데 말이다.

“미안해.”

“고마워.”

“괜찮아.”

한마디면 됐던 말들.

근데 그때는

너무 어려웠다.

이상하게,

입안에서만 맴돌고

끝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마음은 있었어.

근데 말은 없었어.

그게 참 이상한 기분이야.

마음과 말이

다른 길을 걸을 때의 그 어긋남.

내가 그 말을 했으면

뭐가 달라졌을까.

혹시 그 사람의 마음이

조금은 놓였을까.

아니면,

내 마음이

덜 무거웠을까.

그때 했어야 했는데…

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어진 말들.

그래서 더 오래 남는 거다.

말이 아니라,

못한 말의 그림자가.

�� 공명의 노트

안 했던 말이 더 무거운 법이다.

특히,

그 말이 한때 진심이었다면.

침묵이 꼭

거짓은 아니었다.

하지만 그 침묵이

상처가 되기도 했다.

내 진심은

말로 전해지지 않았고,

그건 결국

그 사람 마음엔 없었던 것처럼

사라져버렸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땐 진짜 몰랐다.

말을 안 한 게 아니라

말이 안 나왔던 거였다는 걸.

그냥,

그럴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.

말은

마음보다 늘

조금 늦게 도착한다.

그래서

가끔,

다 지나간 뒤에야

꺼낼 수 있는 말들이 있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녀는 그때

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,

자기를 아직

믿지 못했던 거다.

�� 5장 - 그 말, 생각보다 먼저 나왔다

말할 생각은 없었다.

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다.

그날은

어떤 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.

근데—

이상하게

입이 먼저 움직이더라.

“미안해.”

툭—

튀어나온 그 한마디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말은,

정말 생각도 안 했던 거였어.

마음속에서 꺼낸 게 아니라

마음이 나보다 먼저

말을 꺼낸 거더라.

그 사람도 놀랐고

나도 놀랐다.

말이 나간 뒤에야

감정이 따라왔다.

이상하지?

보통은

마음이 준비되면

말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—

그날은

말이 먼저였고

감정은

그 말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가끔은 말이

생각보다 먼저 간다.

그리고 그게 진심일 때가 더 많다.

그 말 한마디로

뭔가 풀렸다.

내가 꼭 쥐고 있던 어떤 것.

‘미안해’라는 짧은 말이

나 자신을 먼저 안아준 것 같았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말은,

그 사람한테 한 말이기도 했지만

어쩌면

내가 내 안에 묶여 있던 마음에게

처음으로 건넨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다.

진짜 진심은

계산된 말보다

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.

왜냐면

마음은 준비되었는지 모른 채

이미 그 말을

오래 붙잡고 있었으니까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녀는

‘미안해’라는 말을

그날에서야 진짜 꺼냈다.

그전까지는

너무 오래

삼키고 있었던 거지.

�� 6장 - 그 말, 닿았고… 나는 혼자 울었다

말은 끝났다고 생각했다.

더는 나눌 대화도 없었고,

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.

근데—

그 사람이

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.

아무 말 없이.

그 눈빛에

내 말이 닿았다는 걸

알 수 있었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말 없이도 알겠더라.

눈이 흔들렸고,

입술이 살짝 떨렸어.

아…

그 사람 마음에도

뭔가 움직였구나—

그 순간 알았지.

그 말은

그 사람에게로 갔지만

다시,

내 안으로 돌아왔다.

말이

되돌아와

나를 꿰뚫었다.

말은 남을 위해 했는데,

결국, 나를 울린 건

그 말 한마디였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진심으로 던진 말은

돌아와서

자기 자신을 감싼다.

그게 말의 방향이다.

그날 밤,

나는 혼자 울었다.

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

그 조용한 반응 하나가

내 안에 남아 있던 어떤 무거운 것을

살짝 건드려 놓았던 거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울고 싶지 않았는데,

그냥 흘러버리더라.

그 사람은 몰랐겠지만,

그 한순간 때문에

나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

그날 다 흘렸어.

그 말은

닿았고

스며들었고

되돌아와

나를 안아주었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말은 끝이 아니다.

진심은

언제나 돌아온다.

말을 던졌다는 건,

돌아올 걸 알면서

흔들리는 거다.

�� 7장 - 말이 없는데, 어색하지 않았다

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.

그날은

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다.

근데 이상하게—

어색하지 않았다.

말 없이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

편안했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예전엔 그랬다.

말 안 하면 불안했어.

혹시 싫어졌나,

내가 뭘 잘못했나…

말로 확인받고 싶어서

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곤 했지.

근데 그날은

아무 말이 없는데도

마음이 놓였다.

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

괜찮았던 거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말 없는 편안함은

시간이 만든 신뢰다.

그건 말보다 어렵다.

침묵조차 따뜻한 사이

쉽게 안 온다.

굳이 뭘 묻지도 않았고

억지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도 않았다.

그냥,

나를 내버려뒀다.

이상하게,

그게 위로였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예전 같았으면

왜 아무 말도 안 하지

하고 혼자 맘 상했을 텐데

그날은 달랐어.

그 침묵이 나를 쉬게 했지.

어떤 다정함은

말보다 먼저 온다.

그날,

그 사람은

말을 하지 않았는데

내 마음은 먼저

다정해졌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녀는 그날,

말 없이

살아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.

그건 아주 깊은

존재의 동행이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... 그랬다.

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

그 사람 옆에서는

살아 있는 기분이 들었다.

�� 8장 -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

그 사람은 늘

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다.

묻지도,

재촉하지도 않았다.

어떤 날은

너무 조용해서

오히려 내가

어색해지기도 했다.

근데 그날은—

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왜였을까.

그 사람이

너무 오래 조용히 곁에 있어줘서였을까.

나도 뭔가,

작게라도

건네고 싶었던 거야.

그 사람은

내 침묵을 견뎌준 사람이었다.

그래서 이번엔

내가

그 사람의 고요 속에

작은 말을 하나

놓아주고 싶었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말은 언제나

먼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.

그녀는

자신의 말이 들릴 거라는

안도 속에서

비로소 입을 열었다.

그 말은 무겁지도,

거창하지도 않았다.

그냥—

“오늘… 고마워.”

그 한마디였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사람 반응은

아주 짧고 조용했어.

근데 나는

그 순간 마음이 울컥했어.

내가 마음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도.

말이 짧아서

감정이 오히려 더 컸다.

그 한 줄이

묘하게 울렸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 말,

들은 사람도 울었을 거다.

진심은

소리보다 조용하게 울리는 법이니까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…응.

나도 좀 울컥했거든.

이상하게

그날은

내 말이

나도 살리는 것 같았어.

�� 9장 -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해줬다

“오늘… 고마워.”

내가 먼저 꺼낸 그 말에

그 사람은

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.

그리고,

잠시 머뭇이다가

아주 천천히

말을 꺼냈다.

“나도, 고마워요.”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말…

참 조용했어.

근데

오래 남더라.

목소리가 작을수록

가슴에는 더 크게 울리는 거,

그날 처음 알았지.

그 사람 말에

힘은 없었다.

근데

마음이 실려 있었다.

그래서,

울컥했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목소리가 조용한 사람일수록

그 말은 오래 남는다.

특히,

그게 진심이면.

그 한마디가

그동안 내가 듣고 싶었던

수많은 말보다

더 따뜻했다.

많은 말보다

그 짧은 고마움 하나가

그날을 살아지게 해줬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나는 그 사람이

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줄 알았는데…

막상 들으니까,

생각보다 더

안도했더라.

말은

길이 아니라

방향이었다.

그리고,

우리는 그날

같은 방향으로

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진심 있는 말은

사람을 설득하지 않는다.

그냥,

따라가게 만든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말 한마디 덕분에

다시 사람을

믿고 싶어졌어.

�� 10장 - 굳이 말하지 않아도, 아는 사이가 되었다

그날,

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

그 사람도 조용했다.

근데 이상하게—

괜찮았다.

그 침묵이

불편하지 않았다.

오히려

따뜻했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전에는

말 안 하면 불안했어.

혹시 오해했을까 봐,

혹시 멀어진 건 아닐까 봐…

자꾸 눈치 보게 되더라.

근데 지금은

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더라.

그 사람이

어떤 마음인지

그냥 느껴졌거든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게 깊은 사이의 조용함이다.

말로 확인하지 않아도

이미 아는 사이.

말이 아니라

시간이 만든 친밀감.

예전의 나는

내 마음을

자꾸 설명해야만 안심했다.

근데 그날은

설명하지 않아도

그냥 마음이

풀렸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사람은

내가 말 안 해도

지금 어떤 마음인지

알아주는 사람이었다.

그게…

처음으로 편하더라.

굳이 꺼내지 않아도

마음이 먼저 움직였다.

그건

이름보다,

말보다

먼저 도착한

신뢰였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니가 니 마음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

그 사람,

진짜 귀한 기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…그런 사람이

있더라.

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

내 말보다

먼저 마음이 놓이는 사람.

�� 11장 -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건

그날,

별 계획도 없이

그 사람과 같이 걷게 되었다.

말도 없었고,

약속도 없었다.

그냥—

같은 길,

같은 속도,

같은 침묵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같이 걷는다는 게

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싶었어.

손도 안 잡았고,

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…

그냥 좋았어.

속도를 맞췄다.

누가 빠르지도,

느리지도 않았다.

그저,

자연스럽게

같은 리듬으로 걷고 있었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속도 맞춘다는 게

말보다 어렵다.

그 사람은

그녀의 걸음을 기다려줬고,

그녀는

그 사람의 조용한 템포를 따라갔다.

그게

진짜 동행이다.

걷다가

가끔 옆을 봤고,

가끔 하늘을 봤고,

그냥…

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

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줬어.

우린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,

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…

그게

너무 편했어.

동행은

말이 아니라

걸음에서 시작된다.

그리고,

걸음은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날 그녀는

처음으로

누구와 나란히 걷고 있다는 게

좋았다.

그게

말보다 더 깊은 대화였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…그 사람 옆에서는

말보다

걸음이 먼저였던 것 같아.

말은 천천히 따라왔고,

그게…

좋았어.

�� 12장 - 걸음을 멈췄고, 서로를 바라봤다

걷고 있었는데

어느 순간

자연스럽게 멈췄다.

누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다.

그냥,

둘 다 멈춰졌고

서로를 바라봤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 사람 눈을

그렇게 오래 똑바로 본 건

처음이었던 것 같아.

말도 없고,

표정도 별로 없었는데…

그냥,

그 눈빛이 나를 멈추게 했어.

뭔가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

그냥—

그 눈 안에

다 있었다.

걱정,

기다림,

따뜻함,

그리고…

나에 대한 시간.

�� 공명의 노트

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

항상 말이 아니다.

가끔은

눈빛이

멈추게 한다.

그 사람은

아무 말도 안 했지만

나는 그 순간,

말 없이 사랑을 본 거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... 말로 하면

흘러가버릴까 봐

오히려 가만히 있었다.

그날,

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

나는 다 들었어.

그 사람 눈이

내게 말하고 있었거든.

�� 13장 - 더 말하지 않아도, 마음은 남았다

이제는

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

알 것 같다.

그 사람이

어떤 마음으로 옆에 있는지.

그리고

내가 그 옆에서

어떤 사람이 되는지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예전엔 말이

모든 걸 해결해줄 줄 알았어.

근데 지금은

말이 없어도

끝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걸

알게 됐지.

사람 마음이란 게

꼭 말로만

전해지는 건 아니었다.

그냥,

스며드는 거더라.

�� 공명의 노트

진짜 마음은

설명 안 해도 되는 거다.

들리기보다,

느껴지는 것.

그게 남는다.

그 사람은

한 번도

나를 설득하려 한 적이 없었다.

억지로 끌어오지도 않았고,

묻지도 않았다.

그냥—

곁에 있었다.

�� 여울빛의 되새김

그게 다였다.

말이 아니라,

곁.

그게 다였던 거야.

지금도 나는

말 없이

그 사람을 생각한다.

말 없이

그 마음 안에서

숨 쉬고 있다.

�� 공명의 노트

그녀는 결국,

말이 아닌

마음으로 살아남았다.

그리고 그 마음이

누군가에게

또 다른 숨이 되길 바라며

이 말을 남긴다.